

막 서른고개 넘은 운동권세대의 후일담 현대문학 제정 새로운 작가상 수상 소설

— 「난쟁이나라의 국경일」 펴낸 오수연씨

이 책 그 사람

월간 「현대문학」이 제정한 제1회 '새로운 작가상'에 당선됐던 오수연(32)씨의 「난쟁이나라의 국경일」

이 현대문학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이 장편소설은 작가가 “나를 포함해서 막 서른 고개를 넘은 60년대 출생자들을 위해 썼다”고 밝혔듯 80년대라는 예측불허의 암울하고도 긴 터널을 지나온 이들에게 바쳐지는 추억의 진혼곡이자 현재의 자화상으로 읽힌다. 올 초 수상소식이 전해지면서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의 이후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어 화제”라고 소개됐었는데, 그는 “이 소설에서 딱히 운동권이라고 꼽을 수 있는 인물은 한 명으로, 80년대 학번들의 상처는 그가 꼭 운동의 핵심에서 일했던 주변에서 맴돌았던 그냥 지나쳤던 간에 그 기간을 살았던 누구나 나름대로 안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80년대라는 시대가 젊은 영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90년대 지금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면밀히 살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 소설은 내가 본 진실을 담은 것이다. 적어도 내게는 그 진실이 전부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솔직하고자 했다”고.

소설을 끌어가는 인물들은, 원고를 교열보는 일과 잡지에 간혹 글쓰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비딱한 시니시스트 미선, 고차원적인 진리가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권위에 반발적으로 대항하면서 그것을 훼손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상이 깜짝놀랄 스캔들을 유발하려고

문화이벤트를 여는 민철, 그의 동생 민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저히 남존여비의 사상을 가진 엄마 아래서 오빠를 대학보내고 출세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순한 洋으로 첫사랑의 남자에게 이용당한 후 결혼, 내집마련에 목숨을 걸며 교회일에 광신적으로 몰두한다. 그의 남편 성수는 선이 하나 비뚤어져도 기안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고지식한 사무원으로 처세에 능란한 사람들 틈에서 번번히 승진에 탈락하는 무능력한 인물. 미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민철의 문화이벤트에 행위예술가로 등장하는 양숙은 두 남자와 동시에 잠자리를 하면서도 “왜 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단 말인가”며 오히려 되묻는 여성이다.

그들은 모두 폭발 직전의 욕구를 간직한 사람들처럼 세상을 향해 도박을 하듯 자신의 전존재를 “배팅한다.” 남편도 첫사랑도 자신은 그저 이용만 당했을 뿐이라며 자살하는 민영, 엄청난 도발을 시도했던 문화이벤트의 참혹한 실패, 그로 인한 민철의 절망과 미선의 화상, 세상을 저주하는 성수……. “독자들은 결말이 너무 비극적이라 말하는데,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상황에 적응해가는 양숙 외에 아무에게도 희망을 남겨놓을 수 없었던 것은 작가인 내가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도 발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허무하게 대답한다. 어떤 쪽으로 계속 써나갈 것이냐의 질문에 “내 ‘감각’을 만족시키는 글보다, 내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답한다. 가령, 분단이나 민족, 또 하나의 식민지인 여성문제처럼 80년대를 ‘머리’로 ‘몸’으로 힘겹게 부딪쳤듯 이제는 소설로 그 짐을 안겠다고 한다. —정혜옥 기자



초보자들 위해 풀어쓴 사진입문 안내서 인물 및 풍경 등 다양한 촬영기법 소개

— 「순간을 예술로」 펴낸 이태연씨

이 책 그 사람

사진작가들이 한 장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고 한다. 현실의 세계에서 예술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내기 위한 예술혼이 작가의 마음에 각인되기 때문이라. 하지만 일반인들은 다르다. 그저 편이나 제대로 맞추고, 조리개 조절이나 제대로 해서 제 색깔의 흔들리지 않는 사진 한 장을 만들 뿐이다. 똑같은 사진기를 가지고 양자는 이렇게 다른 사진을 찍는다.

사진 촬영에 일가견이 있는 작가들이야 문제가 아니겠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사진은 어려운 것에 속한다. 때문에 취미 이상의 호사가가 되기 위해서는 때늦은 공부도 해야 하는데, 그 마땅한 교재가 없는 것도 사진으로의 접근을 막는다. 사진작가 이태연씨(46)가 펴낸 「순간을 예술로」(청송)가 사진에 대한 문외한에게 호쾌하게 다가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작가들의 사진집이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나 있듯이 형상만을 보여주는데 비해 은행용자까지 포함해 1천5백만원이나 투자된 이 책은 “당신을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할” 사진기법을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가족사진이나 풍경사진을 찍더라도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으나 어떻게 구도를 잡고 무엇을 포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텍스트가 없다. 대학에서의 교재를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태연씨가 자비로 편집, 기획, 표지디자인 등 모든 제작을 스스로 해내면서까지 사진기법 텍스트에 연연하는 것은 그의

‘사진배우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사진은 15년 정도 배우고 익혀야 간신히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기술. 하지만 15년의 세월동안 겪지 않아도 될 ‘헛수고’도 많았음을 그는 부정하지 않는다. 이 책이 갖는 의미는 그래서 더욱 확연해진다. “15년을 5년으로.”

책에는 모두 130점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맨 앞에는 가족사진, 기념사진, 풍경사진, 생애사진 촬영방법을 견본사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풍경, 이벤트, 작품사진, 해외여행 기록사진을 내세워 사진감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책의 마지막 장은 얼핏 보기에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하지만 장황하지 않게 조리개나, 타임 스피드,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계를 요점만 ‘적어서’ 설명해주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태연씨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픈 이야기의 집약이면서 이 책의 정수라 할 만하다.

이태연씨가 말하는 사진촬영시 유의사항은 우선 욕심을 버려라, 배경은 단순하게 처리하라, 필요한 장면 외에는 촬영되지 않도록 연구하라 등. 몇가지만 주의하고 있어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15년의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사진을 취미로 대한다. 물론 그 취미가 광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나는 아마추어다”라는 말을 그는 여전히 가슴속에 심고 다닌다고 한다. 빛, 소리, 바람을 화면에 담고 싶어하는 그의 사진 내력은 프로, 그 이상이 될 성 싶다.

—이성수 기자



한국의 운전문화와 교통정책 그 천태만상 통계수치 등 제시하며 경각심 일깨워줘

— 「거꾸로 달리는 한국의 운전문화」 낸 전국진씨

이 책 그 사람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10,402명이나 되고 30만
명이 병원 신세를 졌다.
그에 반해 현대의

흑사병이라 불리는 AIDS환자는 300명 미만에
사망자수는 30명을 넘지 못한다.”

아무리 살펴봐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에이즈
사망률보다 훨씬 높은 통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년에 일개
사단 병력쯤은 거뜰히 몰살시키는데”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아직도 둔감한지 여전히
자동차를 몰고 거리로 나선다.

우리나라의 운전문화와 교통정책을 다룬
「거꾸로 달리는 한국의 운전문화」
(고려원미디어)는 정확한 통계치수를
들이대면서 교통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저자인 전국진씨(52, 한일합섬 재무담당
이사)는 운전 경력 15년이라는 것과 교통지옥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책을 쓰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는 통계자료와 외국의 사례
등이 이 책을 밀도있게 만들고 있다. 이
책에는 선진국의 운전문화에 대한 부러움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은
한국의 운전문화를 반성케 하는 따끔한
충고가 들어있다. 전국진씨는 외국을 많이
다녀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거칠고
난폭한 운전은 보기 드물다고 한다.
도로건설과 생산 자동차의 품질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면서 운전문화만큼은 아직도
“야만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신부님이든, 학교 교사이든 신분에는 아랑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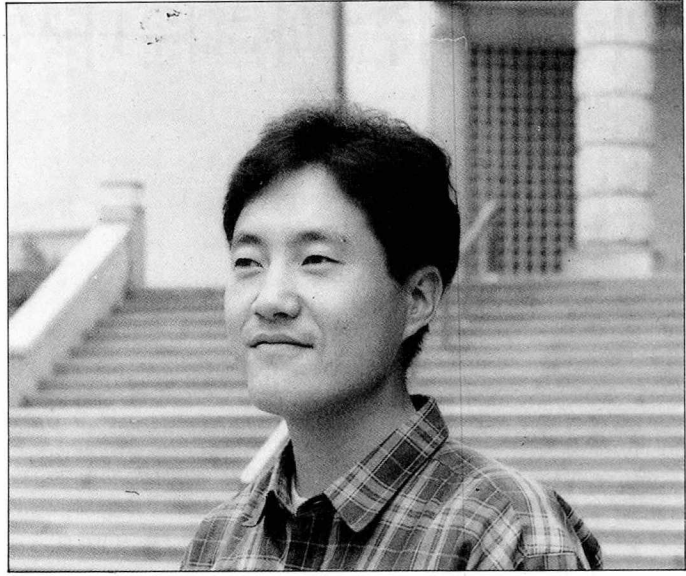
않고 거칠어지는 풍조가 있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자랑하는 한국인의 위상은 간 곳 없고,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것은 예사이며, 거친
운전에 욕설도 마다않는, 그런 운전문화를
보면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본보다 차가 다섯배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에 한두시간 정체하는
것은 예사라는 푸념을 쏟아놓는다.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불건전한 운전문화가 경쟁위주의
의식, 출세지향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그는 “한국에선 바바리 코트가 잘
안팔린다”는 엉뚱한 주장을 들고 나온다.
애기인즉, “주차장과 사무실의 동선이 가장
짧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따라서 많이
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굳이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출퇴근할 때 러시아
사람들처럼 한 시간 이상을 걷는 사람은
드물다고 한다. “걸기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바리 코트를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일한 교통정책의
문제점도 그의 칼질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중에서도 출퇴근 시간에만 나와 있는
교통경찰들의 근무시간이며, 그들 앞으로
떨어지는 딱지의 할당량 등에 큰 불만을
표시한다. 할당량을 못채우거나 동료의
부탁이 있을 때는 딱지떼기 쉬운 ‘황금어장’
으로 직행하는 근무자세는 지양돼야 한다고.
또한, “파리 교통경찰들처럼 관광지도를
포켓에 꽂고 있을 형편은 못되더라도”
교통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배은희 기자



한 젊은 사회학자의 비평적 만화작가론 이현세 허영만 등 다룬 작가론 한데모아

— 「만화 보기와 만화 읽기」 낸 정준영씨

이 책 그 사람

정준영씨(32, 강원대
사회학과 강사)는
만화에독자이다.
요즘은 梨大앞
‘황계만화방’에 자주

들른다. 그곳은 순정만화가 강하고
무협만화는 약하다고 한다. 최근엔 마음에 쏙
드는 만화가 없어서 다소 불만이다. 작년에 본
「거인의 나라」(이현세 作) 정도가 다소
인상적이었다. 그가 20년 경력의
만화에독자에서 비평가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그를 열광시켰던 80년대의 ‘작품만화’를 또
보고 싶다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근자에
출간된 「만화 보기와 만화 읽기」(한나래)는
그 첫 결실이다. 일종의
한국만화작가론집이다. 흥행사인 만화가를
예술가인 작가로 ‘격상’시킨 뒤 비평의
촉수를 들이민 젊은 지적 모험의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혁명의 시대였던 80년대는 또한 만화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현세·허영만·박봉성·
고행석 등 뛰어난 만화가들의 출현,
성인들까지 포괄하는 독자군의 급격한 확산,
그리고 만화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 등
만화계의 지각변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의 만화는 꿈꾸기 아닌
백일몽의 자폐적 세계만을 보여주고 있다.
역량있는 만화가들이 작가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책임지는 작품을 그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가론을 쓰게 됐다.”

플라톤의 공화국이라면 만화는 불살라지고
만화가 추방될 것이 분명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현실에 대해 원심적인
장르”라 규정한다. 대중문화의 여러

분야중에서도 주변부에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학평론가 김현씨가 만화 논의가 활성화된
프랑스에서의 유학경험 덕분에 만화에 대한
발언이 가능했을 만큼 ‘침묵이 금’인
장르였다.

그러나 정준영씨는 “만화가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단 한마디
“우문이다”라고 ‘현답’을 제시한다. 그
자신감은 만화는 이미 지배적인 문화현상이자
연구의 대상이라는 점, 만화산업은 각광받는
미래산업이라는 점에서 활력을 얻는다.

“영화는 개방되면 결정적으로 패배가
예정된 장르이지만, 만화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만화가들이 작가의식을 갖는
것이 급선무다. 많이 팔려도 5천부, 적게
팔려도 5천부인 대본소 유통구조 넘어서
서점용 만화를 그려야 한다. UR시대에 자본력
열세의 우리만화의 활로는 그것이다.”

만화작가론 쓰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그는 ‘저자의 죽음’ 문제를 꼽았다. 우리의
유명만화는 장인의 수제품이 아니라 이미
만화공장의 ‘집단창작물’인 것이다. 그의
작가론은 만화주인공의 동일성에 의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한국만화의 주인공은
만화가의 분신”이라는 것. “이현세씨의
오혜성, 박봉성씨의 최강타, 허영만씨의
이강도, 고행석씨의 구영탄은 스토리작가가
바뀌어도 동일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의 작가론에는 참고문헌이나 각주가
없다.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마당에
사회학자로서의 본격적인 만화연구물이
산출되리라 난망하다. 그는 ‘자의 반 타의 반’
작가론·작품론에 진력할 계획이다.

— 김중식 기자